

JUVENILE TITLES

FICTION

제목 : THE MAGIC MISFITS

가제 : 외톨이 마술사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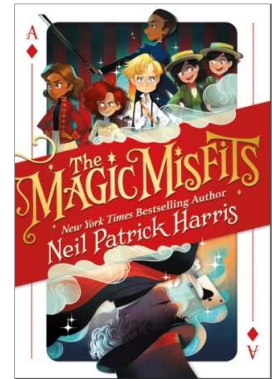
저자 : Neil Patrick Harris

출판사: Little, Brown Books for Young Readers

발행일: 2017년 11월 21일

분량 : 224 페이지

장르 : YA 소설



* 미국 드라마 <천재소년 두기>의 주인공 출신 배우 닐 패트릭 해리스가 처음으로 완성한 **YA 소설, 4부작 시리즈의 첫 번째 이야기**

* 모험과 우정, 새로 찾은 가족을 통해 스스로의 가치를 찾아가는 여섯 명의 용감한 마술사들

타고난 재능도 방향이 잘못 잡히면 엉뚱한 곳에 쓰이는 비극적인 일이 발생한다. 부모님이 어느 날 한꺼번에 사라진 어린 카터도 하마터면 그런 인생을 살 뻔했다. 세상에서 가장 예쁜 미소를 가진 엄마, 귀에서 동전을 똑딱 꺼낼 줄 알던 아빠는 어딘가로 사라져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고 카터는 ‘음흉한 마이크’라 불리는 삼촌에게 맡겨졌다. 삼촌도 아빠처럼 물건을 없애고 다시 생기기 만드는 솜씨가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그 손재주를 나쁜 곳에 쓴다는 것이 문제였다.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달은 카터는 점점 더 엉망진창이 되어가는 삼촌과의 생활을 정리하고 막막하지만 혼자 살아보기로 결심한다.

어린 눈에 동전을 이리저리 없앴다가 꺼내는 삼촌의 마술이 신기하기만 했던 카터는 가르쳐달라고 조르고, 조수가 있으면 편리하겠다는 생각이 든 삼촌은 기꺼이 자신이 가진 모든 마술의 비결을 조카에게 알려주었다. 연습을 시작하니 타고난 마술사라는 사실이 드러난 카터는 삼촌의 실력을 뛰어넘는 탁월한 솜씨를 보이며 나날이 발전해갔다. 마술을 배운 지 1년이 지나고 카터의 생일 날, 삼촌은 얼마나 늘었나 확인해보자며 길거리로 카터를 데려갔다. 마침 지나가던 커플에게 마술을 보여주겠다고 이야기한 뒤, 카터는 상대방이 카드를 고르게 하고 그 카드의 그림을 맞추는 것은 물론 골라 놓은 카드가 감쪽같이 사라졌다가 옆 사람 주머니에게서 끄집어내는 놀라운 마술 실력을 마음껏 뽐냈다. 커플이 감탄을 연발하며 얼굴 가득 웃음짓는 모습을 보는 순간, 카터는 가슴이 뭉클해졌다. 마술이 누군가에게 이토록 즐거움과 기쁨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벅찬 마음이 든 최고의 생일이었다. 하지만 신나게 마술을 하는 동안 옆에 있던 삼촌이 커플의 결혼반지와 팔찌를 훔쳤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고 나서야 삼촌이 진짜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카터는

뒤늦게 깨닫고 말았다. 삼촌은 마술사가 아니라 사기꾼, 소매치기, 도둑이었다.

싫다는 카터에게 자꾸 도둑질을 강요하고, 끝까지 거부하면 자신이 ‘작업’하는 동안 망을 보라고 시키고, 아무 기별도 없이 며칠이나 집에 들어오지도 않다가 몸 곳곳에 멍이 들고 분노로 일그러진 눈빛으로 돌아오는 삼촌은 결코 좋은 보호자가 아니었다. 결국 삼촌의 사기 행각이 도를 넘어선 어느 날, 인내심이 바닥난 카터는 직접 인생을 개척하기로 결심하고 멀리 달아나버린다.

미네랄 웰스라는 마을에서 미스터 버논이라는 똑같은 이름을 가진 두 남자를 만난 카터는 두 사람이 키우는 입양딸과도 알게 되고, 이들을 통해 자신과 비슷한 아이들을 만난다. 탈출 마술의 귀재 레일라, 공중부양 마술의 전문가 테오, 변신 마술 천재 라일리까지, 카터처럼 기막힌 마술 실력을 가졌지만 나름의 이유로 사회에서 달아나거나 쫓겨나 떠돌던 아이들이었다. 이들은 이제 막 그 방향의 길에 들어선 카터를 따뜻하게 맞아주고 마술이 지닌 치유의 힘, 그리고 피를 나누지 않아도 훨씬 더 끈끈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카터까지 여섯 명의 아이들은 마술 팀을 꾸리고, 미네랄 웰스 마을을 손아귀에 넣으려는 사악한 보소 일당으로부터 마을을 구하기 위해 특별한 마술 솜씨를 발휘할 계획을 세운다. 원하는 건 뭐든 다 훔쳐야 직성에 풀리는 보소와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뭐든 다 하는 그 부하들의 무자비한 행동은 갈수록 강도가 더해가는데, 카터와 친구들은 과연 무사히 마을을 구할 수 있을까? 여섯 아이들의 신기한 마술과 우정, 작은 힘이나마 보태려는 협력 속에서 서서히 깨닫는 스스로의 가치와 삶의 소중함에 관한 이야기가 흥미진진하게 펼쳐진다.

<저자 소개>

닐 패트릭 해리스(Neil Patrick Harris)는 우리나라 TV에 방영되어 큰 인기를 끈 미국 드라마 <천재소년 두기>의 주인공 두기 역할을 맡은 배우이다. 이후에도 여러 영화와 드라마에 출연하고 프로듀서, 방송 진행자, 저술가로 활동해 왔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마술 아카데미(Academy of Magical Arts)’ 대표를 역임했다. 회고록 『Choose Your Own Autobiography』는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대열에 올랐다.

제목 : THE HAWKWEED PROPHECY

가제 : 호크weed 가의 예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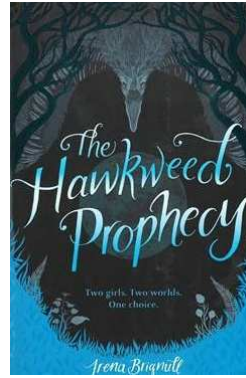
저자 : Irena Brignull

출판사: Weinstein Books

발행일: 2016년 9월 6일

분량 : 368 페이지

장르 : YA 소설



*** 1, 2권 모두 미국 프로덕션 업체와 영화, 필름 제작 계약 체결**

*** “주인공이 자신을 발견해가는 중심 이야기와 함께 우정과 욕망, 마술, 비밀, 저주까지 모든 요소가 담겨 있는 이야기” - 『Ophelia』의 작가 카렌 폭슬리**

*** “로맨스, 가슴 뛰는 이야기, 서스펜스가 가득한 소설. 흡입력이 대단하다” - 『Asylum』 시리즈의 작가 메들라인 루**

시계가 정확히 자정을 가리킬 때 태어난 두 명의 여자아기, 그 순간 밤하늘을 가르던 박쥐가 바닥으로 떨어지고 은빛 연어가 죽은 채 강 위로 떠올랐다. 꼬물거리며 기어가던 달팽이는 등에 지고 있던 껍질을 잃고, 나방은 한 순간에 먼지로 바뀌어 공기 중에 흩어졌다.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순식간에 일어난 마법 때문에 벌어진 일들이다. 이런 기묘하고 흥흥한 일들은 이 마법의 주된 목적에 뒤따른 부작용에 지나지 않았다. 바로 두 여자아기를 바꿔버리는 것이다. 아기를 낳은 두 엄마조차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게 바뀐 두 아기, 파피와 엠버는 그렇게 자신을 낳아준 부모와 태어나자마자 멀어져서, 원래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깨닫지 못한 채 엉뚱한 곳에서 성장했다.

파피는 외모부터 성격까지 절대 평범한 십대 여학생이 될 수가 없었다. 일단 눈부터가 하나는 푸른색, 다른 하나는 녹색으로 다른데다 눈동자에 까만 점까지 도렷하게 찍혀 있어서 마주보는 사람을 소스라치게 만들었다. 어디를 가든 고양이가 따라다니고, 파피 주변에서 거미들은 휘황찬란한 무늬가 가득한 거미줄을 짜곤 했다. 아빠는 딸이 어딘가 신비한 능력을 지닌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우지 못하고, 학교에서도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이상한 영향력 때문에 원치 않는 시선이 집중되기 일쑤였다. 파피는 조용히 학교를 다니고 싶었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아 늘 외톨이로 지내야만 했다.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그것을 숨겨야 하고 아무렇지 않은 척 연기하는 것만큼 피곤하고 지치는 일도 없었다. 한편, 나라 반대쪽, 파피와 멀리 떨어진 곳에 모여 사는 마녀들 속에서 수백 년을 이어온 유명한 마녀 가문 호크weed 가의 딸로 태어난 엠버 역시 늘 외톨이였다. 엄마 찰록도 마녀 집안에서 언니인 레이븐 호크weed와 달리 늘 심약하고 힘 없는 마녀로 알려져 있었지만, 엠버는 그런 엄마보다도 마녀로서 훨씬 더 형편 없는 모습만 보이는 바람에 어릴 때부터 모두의 비웃음을 샀다. 엠버 자신은 누구보다 훌륭한 마녀가 되고 싶어서 열심히 공부하고, 마술을 연습했지만 제대로 되는 건 하나도 없었다. 새하얀 피부와 금발을 늘어뜨린 모습도 다른 마녀들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재 정말 마녀 맞아?” 이런 비아냥이 늘 따라다니고, 그 틈에서 가

치를 인정받기 위해 늘 마음 졸이며 애태워야 했다. 그렇게 주변 세상에 소속되지 못하던 파피와 엠버는 어느 날, 숲 속에서 우연히 마주친다. 그때부터 둘의 엇갈린 운명은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한다.

아빠의 결단으로 원래 살던 곳과 멀리 떨어진 마을로 이사를 온 파피는 엠버와 처음 만나자마자 묘한 끌림을 느낀다. 세상물정을 하나도 모르는 엠버에게 파피는 매니큐어 칠하는 법도 알려주고, 아이팟에 노래를 가득 담아 선물하며 그 나이 또래가 즐기는 문화를 하나 둘 가르쳐준다. 파피에게 설명할 수 없는 끌림을 느낀 건 엠버도 마찬가지였다. 마술에 호기심을 보이는 파피를 위해 엠버는 마녀들이 공부하는 교과서와 여러 가지 책들을 훑쳐다 엠버에게 건넨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서로의 세상을 들여다보면서 이제야 제자리를 찾은 듯 편안함을 느끼는 두 사람은 형제처럼 가까워지는데, 겨우 찾은 우정을 뒤흔드는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한다. 그 시작은 레오의 등장이었다.

집 없는 떠돌이 소년 레오를 보자마자 한눈에 반한 파피는 그의 마음을 얻는 데 성공하지만 엠버에게 소개한 것이 실수라면 실수였다. 마녀들 사이에서 나고 자라 남자아이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엠버는 레오에게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레오의 마음이 갈팡질팡 헛갈리면서 세 사람의 관계는 복잡하게 엉키고 만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파피와 엠버가 원래 있어야 했던 자리를 빼앗고 운명을 바꾸어버린 장본인이 다름아닌 엠버의 이모, 레이븐이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난다. 수백 년 전, 호크워드 가의 마녀가 낳은 자손이 마녀 전체를 이끌 지도자가 되리라는 예언이 내려지면서 두 자매의 비극은 이미 시작됐다. 엄마에게서 그 예언을 들은 레이븐은 어릴 때부터 자신이 바로 그 딸을 낳는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는 목표 하나만 생각하고 살아왔다. 그리고 힘들게 딸 소렐을 낳는데 까지 성공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동생 찰록을 누구보다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은 진심이었지만 소렐보다 동생을 더 사랑할 수는 없었고, 소렐을 최고의 마녀로 만들어야 한다는 오랜 욕망에 사로잡힌 레이븐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하나 둘 넘기 시작한다. 그 무서운 마법의 힘은 엠버와 파피, 그리고 주변 모두의 운명을 어지럽게 흔들고 만다. 파피와 엠버는 저주를 풀고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갈 수 있을까? 사랑의 장벽 앞에서 우정은 지켜질 수 있을까?

운명과 자유 의지, 비뚤어진 야망과 권력, 풋풋한 사랑 이야기가 흥미진진하게 결합된 2부작 시리즈로 두 번째 이야기 『The Hawkweed Legacy』로 이어진다.

<저자 소개>

이레나 브릭널(Irena Brignull)은 유명한 각본가로 오스카 상 후보에 오른 애니메이션 <더 박스트롤스>, 생뵈쥘베리의 명작을 바탕으로 한 애니메이션 <어린왕자>의 각본을 맡았다. <더 박스트롤스>로 2014년 ‘애니 어워드(Annie Awards)>’ 최우수 각본상 후보에 올랐다.